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영암 군서면 지역사회협의체, 구림손맛나눔사업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김치와 밑반찬 등 지원

영암군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군서면 특화사업인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김치와 밑반찬 등을 지원하는 '구림손맛나눔사업'을 실시하였다.

배달 전날, 협의체 위원들은 군서면 목화정 마을회관에 모여 밑반찬을 정성으로 준비하였고, ㈜왕인식품(대표 박정희)에서 기탁해준 김치 등을 가지고 지원 대상자 9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반찬을 전달하였다.

이번 구림손맛나눔사업을 통해 반찬지

원가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으며 생활이 어렵고 외롭게 지내는 우리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김인재 군서면장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반찬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내 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청각여성장애인, 호텔 외식서비스 직무 도전 성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성 맞춰 직업영역 개발

청각여성장애인 4명, 테이블 매니저로 첫 발 내딛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직무는 테이블 매니저로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하여 이루어졌다.

그간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하여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하였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청각여성장애인 4명은 호텔

HDC(주)의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테이블 매니저로서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HDC(주)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로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직업영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한명은 "전에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파크 하얏트 서울 인사담당자는 "면접 볼 때 모두 같이 근무하고 싶은 정도로 직무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우수했다"며 "채용되신 분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공단 강용주 직업영역개발부장은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한 장애인 직업영역확대가 장애인과 기업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방법임이 사례로서 입증되었다"면서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직업영역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장애인 고용 약속 지키는 최태원, SK하이닉스도 동참

행복모아, 제과·제빵 100여명 고용

"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

'무조건 장애인 고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약속에 SK하이닉스도 동참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자회사로 방진복 세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모아'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제과제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이력서를 제출받은 행복모아는 이후 면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입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정규직 100여명으로 제빵, 포장, 재료소분, 물류 분야 등에 종사하게 된다. 행복모아는 입사하는 장애인 직원에 대해 의료비도 100%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행복모아에는 200여명 정도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용인력을 늘려가고 있다. 제과·제빵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것에는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소셜벤처 컨퍼트 2019' 행사에서 SK가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인정하고 "안 되면 무조건 해라, 무조건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생각으로 먼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장애인 고용 의사를 밝힌 이후 지주사인 SK가 장애인 바리스타 26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SK는 그룹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애인 인력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행복모아의 제과·제빵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설립된 행복모아는 꾸준히 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원을 위해 사업장의 공간을 장애인 맞춤형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 취업 뒤에도 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복모아의 사례에 대해 "방진복 특수 세정직무를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용해 새로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의 생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201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기관 등) 참여 가능하다.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인이나 팀(3명 이내)을 구성하거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법인명의로 참가 가능하다.

아이디어 접수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psdcap@kead.or.kr)로 제출하면 된다.

야호센터
영수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